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최 완 복
편집인 안 병 만
주 간 석 일 균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대신문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무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동특별호 제다 253호)

제282호 <순간>
1979년 6월 1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2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어클친선의밤…연극·탈춤·강연회개최

서어클친선의 밤

서어클행사의 절정을 이룬 「서어클친선의 밤」은 지난 달 31일 오후 2~7시까지 제16회 미전을 개최, 41점을 전시했다.

미전 연극반에서는 지난 5월26일부터약 3일간 본관 4층 강의실에서 제16회 미전을 개최, 41점을 전시했다.

오델로공연 연극반에서는 지난 3월 경기 평화상 기념 제 30주년 기념으로 세익스피어 원작 「오델로」를 6월 1, 2, 양일간 매일 오후 4시와 7시에 걸쳐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고성오광대 공연 가면극연구반에서는 오늘오후 5시 도서관 앞에서 고전 가면극 「고성오광대」를 공연한다. 모두 다섯과장으로 구성된 이 극은 무형문화재 7호로 전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란문제강연 최정일도 성황을 이루어 P.T. P에서는, 지난 5월30일 「이란문제와 그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위 교수 (이란어과) 를 초청하여 사회과학관 206호에서 강연을 가졌고 불교학생반은 5월28일부터 6월 5일까지 동국대 원외법보수를 초빙하여 기초 교리강좌를 열고있다.

서어클 친선의 밤 서어클행사의 절정은 「서어클친선의 밤」은 지난 달 31일 오후 2~7시까지본 대학 강당에서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번 서어클행사는 전반적으로 성황을 이루긴 했으나 흠이, 오락 위주의 행사기대 등을 이월으며 서어클행사간의 유기적 조화가 아쉬웠다고 하겠는데 서어클 종합행사로서는 최초의 것이라는점에서 일단 중요한 의의를찾을수 있겠다. 한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하여 가을축제에 비견하는 서어클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술행사를 비롯하여 전체 서어클이 참여함은 물론 앞적 폭은 질적으로 보다 풍부한 내실을 기할수있도록 전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당에서 개최된 서클친선의 밤 광경.

신특의 문제에 들어선 초여름을 맞아 학내 각 서어클은 대학내 기동세신과 서클활동의 활성화를 앞세워다투어 행사를 개최하여 학내는 축제분위기를 띠고있다.

핸드볼반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동문회장배 핸드볼대회를 기점으로 행사의 막이을라 전 외대인의 호응과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진행된서어클행사는 지난달 31일 제1회 「서어클 친선의 밤」으로 절정을이루었다. 금번 서어클행사는 자중행사와 서어클친선의 밤, 서어클 대항제육대회등 세종류로 나눠 행사가 거행되다.

핸드볼대회 서어클밤 행사의 내용을 보면 핸드볼반 주관으로 제10회동문회장배 핸드볼대회가 5월 23일부터 시작해 27개 학과가 참가한 가운데 축구, 배구, 400미일레이, 클라리기동 4개종목에걸쳐 열전을 벌여 에스빠나어과가 종합 우승을거두었다.

미전 미술반에서는 지난 5월26일부터약 3일간 본관 4층 강의실에서 제16회 미전을 개최, 41점을 전시했다.

오델로공연 연극반에서는 지난 5월 경기 평화상 기념 제 30주년 기념으로 세익스피어 원작 「오델로」를 6월 1, 2, 양일간 매일 오후 4시와 7시에 걸쳐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고성오광대 공연 가면극연구반에서는 오늘오후 5시 도서관 앞에서 고전 가면극 「고성오광대」를 공연한다. 모두 다섯과장으로 구성된 이 극은 무형문화재 7호로 전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당에서 개최된 서클친선의 밤 광경.

세민제 소요경비 2천3백여만원

당초보다 3백여만원 초과

지난 4월 28·29 양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된 제6회 세계민속예술제전에 투입된 소요경비 내역이 밝혀졌다. 이번에 소요된 총경비는 2천3억6심8만355원으로 이는 당초 학도호국단에서 책정한 1천9억9심8만8천7억5원보다 약3억70여만원이 초과된 액수이며 동경비에는 학도호국단에서 관내한 참플렛 관매료 자체의 조달된 160만원은 포함되어있지않다.

당초 예정된 액수보다 약 3억70여만원의 재원은 교비의 추가지원 2억46만여원, 지도비 1억24만여원에서 염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각 과별로 소요된 예산을 보면 보조비 50만원가량을포함하여 어느과에서는 90만원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화폐비, 동문들의 협조, 각 학과별로의 후원등으로조달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출연학과에서는 연습에서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조달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은것으로 알려졌는데 경비조달문제에 있어 올해와같은 특정한 공연장을 택할 경우 책정한 앞의 티켓을 외부인에게도 유료로판매하는 방안, 세민제를 위한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채택되어야할 것으로들이피고 있다.

한계당국에서 밝힌 제5회 세계민속예술제 예산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종문화회관 대관비=47만8천원▲각과보조비=8억30만원▲인쇄비(티켓·팜플렛)=3억28만원▲포스터부착및 도안, 계획서 프린트경비=9만원▲음악협찬비=6만원▲회의비=43만7천원▲방일전별비=43만7천원▲출품구입비44만5천원▲선의비및 풍보공연선고=29만원▲리셉션작경비=9만원▲운비비=56만4천원▲사비비 (공연관계·연출진)=73만원▲출연자기념품비32만원▲아카데작경비4억5만원▲사진촬영비=5만원▲각국국기게작비42만원▲추가항목 (슬라이드제작, 마인어파전문보조, 감사패제작, 종합플팜회비)=9억67만원(총계=2천3억68만여원)

알 림

본 외대학보 5월 11일자및 21일자는 중간고사 관계로, 휴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데 대해 독자제위의 양해와 배전의 성원있기를 바랍니다.

동시통역대학원 입시요항 확정

6월20,21일전형,25일합격자발표,8월개강

최학장,대학원 수준으로 설치케된 이유밝혀

○---속보=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인력수출을 위한 통시통역사 양성등 국가적---○
○---수요를 충당키위해 지난 3월 인가를 받아 금년 8월 개설되게되는 통시통역대학원 입시요항을이모---○
○---허졌다. 6월말에 신입생을 모집하게 될 통역대학원은 오는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원서를 교부한---○
○---고 원서접수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있게 된다. 입학시험은 필기와 구술의 두가지로 오는 6월---○
○---20일과 21일에 각각 치뤄지게 되며, 합격자발표는 6월25일 있을 예정이다. ---○

시험과목은 한국어 통시통역과와 외국어통시통역과의 2개 학과 모두 한국어와 외어(I)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한국어 통시통역학과는 영어, 불어, 서어, 러시아어, 중어, 아랍어, 일어중 택일하며 외국어통시통역학과는 영어, 불어, 서어, 러시아어, 중어중 2개국어를 선택해야 한다.

해외거주자는 별도 서류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정규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연구과정으로 입학하여 국가시험에 통과하면 통시통역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도 금년에 가입학하여 청강한 후 내년에 정식 입학할 수 있다.

교육내용을 보면 정치, 경제, 법률, 국제관계 국제기구론등 교양 과목과 각 전공어과목, 순차통역, 동시통역실기등의 전과목을 원어로, 공통과목은 영어로 강의하며 시청각시설, 생활관등을 활용하여 전공어의 감응훈련을받게 되는데 교재는 미국, 일본, 프랑스등지의 통시통역대학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월28일 정식인가를 받아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통시통역대학원은 향후 5년간 11억원의 국비보조를 받게 된다.

최학장은 이기구를 대학원 수준으로 개설케 된 이유로서, 첫째 국제회의의 원활한 진행, 통역을 위해서는 어학실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제법, 외교관계 등이등 해당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두번째로 통역학원의 설치로 인해 언어전공학생이 증원이 되어있는 본대학이 대학으로서의 학문적 권위와 성과를 높이는데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유중국 교육시찰

최학장 5개대학과 교류논의

본대학 최한복학장은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자유중국 문교성 초청으로 교육시찰차 자유중국을 다녀왔다.

이 기간동안 최학장은 자유중국의 중요대학을 찾아보았는데 본대학과 자매관계를 맺고있는 보인대를 비롯, 국립대만대학, 국립정치대학, 국립사범대학및 자유중국 최대대학인 문화학원등 5개대학을 찾아보고 본대학과의 학문교류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대학과 이들 5개대학간의 학문교류 문화교류방안에대해 자유중국의 문교, 외무장관들과 원칙적 합의를 끝냈한편 양대학간의 교환교수 파견을 우선 실현한후 기타 기술적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 한다.

학생기자 연수회

포천 산정호수에서

제4회 외대신문사 학생기자 연수회가 지난 5월26일 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안병만편집인, 석일균 외대학보주간, 이영철 The Argus주간과 학생기자전원, 신문사관계직원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개최되었다.

학생기자의 자질향상과 상호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이번 연수회에는 안병만편집인의 「대학인의 올바른 금지」학보 아거스랑 주간의 「신문제작과 그 자세」「외대에서의 학보 특성에 맞추어 이어 본보 김장민편집장과 The Argus 이백윤편집장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류전선과 남북문제」「대학신문의 역할」등의 제하에 박림, 김정기교수의 강연도 함께 있었다.

1학년 병영입소

예비역 제외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영집체훈련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문무대에서 실시된다.

1학년 남학생 944명과 작년에 미입소한 2, 3학년생 16명등 모두 960명이 참가하게되는 10일간의 이번 병영훈련에는 동태와 말리 예비역 학생이 제외된다.

한편 본대학에서는 입소생들에 대한 위문행사를 6월 9일 가질 예정이다.

언어학술발표

9일 시청각교육원서

본대학부설 언어연구소 (소장 : 박순황박사) 에서는 오는 6월 9일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대학 시청각 교육원에서 제5회 언어학 학술발표회를 개최할예정이다.

▲파발 (擺撥) 이란 이조때 공문 (公文) 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역참(驛站)을 말하고 당시 공문을 나르던 사람이 따로 있어 파발마이다. 이조때에는 이 역참이 서울과 의주사이에 설치되었던 것이 의주는 알수가 없고, 서울엔 아직도 구파발동이 남아 있어 사라져가려는 「파발」이라는 단어를 다시생각나게 해준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공복 (公僕) 인 문서를 나르는 Messanger 의 중요성이란 새삼 강조하여 지가 없는 것이기에 파발에 스며진 말은 특히, 특별한 건강의 은마 (隱馬) 를 사용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것은 한시의 오싹도록 이 중요한 공문을 신속히 전달할 의무를 가진 필연성 때문이었을 것이며, 파발마에 거는 신뢰는 그것이 조그마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공문이 자칫 오도 (誤導) 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서라도 역참엔 반드시 파발마를 보살피는 사람이 따로게 했다는 사실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타소 의미는 다르지만오늘날에는 그 파발마의 기능을 메스코뮤니케이션이대신한다고 가정해본다면 공문 (公文) 의 보도기능은분명히 더욱 신속해졌고 활발해져가고 있으며 그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그런데차거 파발마에게 기대했던신의의 바탕이 오늘날 공문 (公文) 을 나르는 대중매체를 답방하고있는 공인 (公人) 들에게서 충분히 찾아볼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그런데 현대의 파발마를 자청하는 자 (者) 들은 스스로의 입에마에 빠지게 되면서도 자신들의 입무와 한계사이를 넘임없이 넘나들기 같은 대중들에게 최대한의 진실을 전달해 보려는 지난 (至難) 한 노력을 해내야만 한다.

▲옛날의 파발군들이 공문을 전달함에 있어 전달자로서의 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능력있이라는개념만이 주어져 있었다면, 오늘날의 파발꾼이라 볼 수 있는 대중매체의 답방자들에게는 많은 자유의사대로 선택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있다.

그러나 역시 자유의지라는 주관적인면보다는 객관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대의 많은 역참 (驛站) 에서, 수많은 파발마에의해 전달되다면 피전달자의 파발마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오던데 문제는여러사회든 간에의파발마가지녀야할 삶 연유비 (三面大臂) 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명분을 다하기 위해서 주어질 필요가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때 결과에 대한 충분한 질책과 책임을 요는정이오 리려 뭣뭣하고 합리적인 일일다.

▲그렇기때문에 현대의 파발꾼이 갖는 책임은 더욱 큰 것이라 하겠다. 때는 되는 자신의 이상 (理想) 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이을때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어진 역할을 해내야만하는 것 또는을 국제하려는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모순의 극복과정은 마치,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한기라의 빛을 보여주는게 옳은일인지, 그른일인지를고민했던 호혜 (調道) 의년인에서 찾아볼수 있겠다. 파발마의 책임은 여기에서 더욱 강조될것이며 이는 파발군이나 비중있는 공문, 파발마를보 삶피고 믿는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신뢰속에서 해결될을 찾아야 할것이다.

피전달자에게 높은 신뢰도를 안겨줄수 있다는 전제하에. <김형만 기자>

제17회 외대문학상 현상모집

6월 13일로 연기, 작품마감 박두

본사에서 제 17회 외대문학상 작품마감이 5월말에서 6월13일까지로 연기 되었습니다. 제명이래 서 기성문단에 숱장한 문인들을 다수 배출한바 있는 본상은 외대인의 문학열 뿐만 아니라 전국적 역량을 발양해 왔다고 자부한다니다. 전학 25주년을 맞는 올해, 외대인 여러분의 문학력 자질이 유감없이 발휘될 본상에 많은 응모있기를 바랍니다.

모집부문및상금 : 시 (2편 이상) 5만원
소설 (60매 내외) 9만원
평론 (50매 내외) 6만원
번역 (50매 내외) 5만원
접수처 : 외대신문사 (학생회관 309.311호)

기한 : 79년6월13일
심사위원 : 추후 발표
당선작발표 : 6월21일자 외대학보

79년 6월

외대신문사

학내 사격대회 개최

종합우승 2부대학 차지

제4회 학장기쟁탈 교내사격대회가 지난달 29일 배능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었다.

외국어학부의 이태리어과와 무역학과를 제외한 26개 학과와 2부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을 벌인 이날 대회에서 단체 종합우승은 처음 출전한 2부대학에 돌아갔다.

한편 이번 대회의 단체및 개인성적은 아래와같다.

▲단체우승 : 2부대학(179점) 준우승 : 법학과(160점) 3위 : 독어어과(143점)

▲남자부 개인 1위 : 이상우 (2부 : T·1) 74점, 2위 : 김홍민 (L·1) 48점, 3위 : 서경덕 (Th) 47점.

▲여자부 1위 : 한옥순(Fe·4) 75점, 2위 : 김윤숙(Ke·3) 73점, 3위 : 이소라 (G·1) 66점

동시통역대학원생 모집요항

1, 모집학과및 모집정원
석사학위과정=한국어통시통역학과, 외국어통시통역학과
원=총 60명
2, 교육기간
2, 정 원=각과 약간명
3, 연구과정
1, 한국어통시통역학과=2년간 국내교육
2, 외국어통시통역학과=3년간(국내교육 1년, 국외교육 2년)
3, 강의 시수=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주당 39시간)
3, 옴모자격
1, 한국어통시통역학과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이와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나)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중 1개 외국어에 능통한자로서 한국어에 능통한자
2, 외국어통시통역학과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이와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나)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중 1개 외국어에 능통한자로서 다른 1개 외국어에 소양이 있는자
※국외 거주 지원자는 별도 서류전형으로 대치함.
4, 시험과목
1, 한국어통시통역학과
(가) 공통과목(한국어, 영어①)
(나) 전공외국어(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중 택1)
(다) 구술시험(전공외국어)
2, 외국어통시통역학과
(가) 공통과목(한국어, 영어①)
(나) 전공외국어(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러시아어, 중국어중 택2)
(다) 구술시험(전공외국어)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동시통역대학원 소정양식)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966년2월이후 졸업자는 반드시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4,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5매
5, 병적증명서 ……1통
6,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 교부기간=1979년 6월 4일(월)~6월 15일(금)까지
2, 접수기간=1979년 6월 11일(월)~6월 15일(금)까지
3, 교부및접수처=본 대학 동시통역대학원
7, 시험일시및장소
1, 필기시험=1979년6월20일(수) 10시부터
2, 구술시험=1979년6월21일(목) 10시부터
3, 장 소=본 동시통역대학원
8, 합격자발표및장소
1979년 6월25일(월) 오후 2시 본 동시통역대학원
9, 원서대금및수험료
(가) 원서대금……1,000원
(나) 수험료……6,000원
10, 특 전
1, 본 동시통역대학원은 정부의 지원으로 국제회의 및 대외관계 행사시 동시통역업무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 교육기관임
2, 외국어 동시통역학과 재학생으로 2년간 해외 유학 경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함
3, 또한 입학 및 재학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는 동시통역사 자격증을 수여함
11, 기 타
예정되어 본인의 능력에 따라 본 동시통역대학원의 교수 또는 국가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에 취업케함
국비유학생 및 장학금 수혜자는 교육후 국가적 행사 또는 경제단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국제회의에 의무적으로 유급근무 하여야 함
1979년 6월 일
한 국 외 국 어 대 학
(☎ 181-1~1820)

개항초기무역과 인플레이션

제22회전국역사학대회 경제 논문요지

일본화폐의 국내유통이 인플레이션 야기

개항은 지식인에게 경제적으로 자각케해

박 찬 일

▲경제학과조교수

1. 머리말

이글은 개항초기 (1876~1895) 무역과 인플레이션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경제의 근대화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개항이 가져온 가장 중대적인 경제현상의 하나는 무역과 인플레이션이었다.

이러한 경제현상은 일반적으로는 봉건체제의 와해 자본주의발흥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라는데 주에 속한다.

이요인은 서양경제사에있어서도 하나의 요인이었지 가장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다. 이러한 서양경제사의 경험을 감안 이글은 한국 근대경제사연구에 있어 「개항=봉건체 해체」 또는 「개항=근대화」라는 지극히단순한 도식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빚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것이다.

2. 한일무역의 동향과 성격

개항초기 한일무역은 다음과 같은 몇개의 반식민지적 환경 (Semi-Colonial Conditions) 속에서 전개되었다. 한국반세봉의 박탈, 일본화폐의 국내유통, 영사재판권의 행사, 일본은행의 한국내 지점설치와 외환시장의 독점, 일본상인자본에 의한 무역독점과 한국인배제, 일본인 선박회사의 한일무역상환 수송의 독점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전개된 한일무역은 다음과 같은 동향과 성격을 갖는것이었다.

첫째 개항후 한일무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연평균 50%내외의 증가율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둘째 일본무역상인에 의한 우리의 수입무역은 일본 자본주의가 미성숙하여 유럽산 특히 영국산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중계무역이었다.

세째 우리의 미일수출은 일본무역상인에의한 쌀 대두 (大豆) 우피 (牛皮) 등식량 원료의 수출이었다.

네째 일본무역상인은 무역독점체제를 기반으로 중계무역에서 상당한 원시적 자본축적을 하였다. 일본수입가격과 미만수출가격의차가 있다.

다섯째 특히 일본상인에 의한 한국산 금 (金)의 대일수출은 일무역 또는 약탈무역의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 일본의 금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리하여 일본의 근대적 화폐제도인 금본위제가 확립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찍째 우리나라의 개항전 무역활동은 제주·여객항의 도고상인그룹의 생산물집산활동에 의하여 이루워졌는데, 개항후에는 이를 도고상인그룹은 일본상인자본의 무역활동에 의존적으로 된다. 농산물수출에 있어서는 농촌유통망을 기반으로 농산물수집과 판매를 탈항하여 면직물수입에 있어서는 일본무역상인들로부터 면직물을 매점하여 보부상조직을 통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한국의 상인그룹은 전매로도 대외무역에 참여할수 있는기회가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도고상인구룹은 그일부가 아무리 무역화폐과정에서 원시적자본을 축적하고 근대적 상인자본의 일본파견 비용, 부산 인천 원산등의 개항비용, 무기구입비, 신식군대 설치비용이었다. 이렇게 볼때 방오전의 발행은 개항에 따른 제경인플레이션, 폐상요소를 재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종합해야 할것이다. 개항초기 아성인플레이션은 수출및 외람인플레이션에 제경인플레이션, 폐한된 것이었으며 그 이는것도 개항체제 (開港體制) 자체에서 오는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시기의 인플레이션을 「개항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수 있을 것이다.

3. 인플레이션의 동향과 원인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첫째 년평균 1백%내외의약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이었다. 이것은 전형 인플레이션에 비교가는 것이라고할것이다.

둘째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생활필수품 특히 식량의 물가가 선도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상황에대한 영국 영사관 보고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인천부사 (仁川府史)에 나타난 인천지역의 물가가 그러하였고 신문에 보도된 당시의 서울지역 물가가 그러하였다.

그러면 이 악성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문제는 최근까지 충분히연구되지 않았으며 연구성과 지체도 오류에 빠져 있었다.

최근 김준보교수의 연구는 이문제를 어느정도 바로 잡고 있다. 과거의 연구결과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대개 저질의금속화폐=당오전의 남발에있거나 농산물 흉작에 있다는 것이었다. 당오전의 남발도 그 원인이 상업의사치, 개정의 문단, 관리의부패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준보교수는 이들 견해가 피상적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복잡과 원인을 카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은 무역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주장한다.

물종분하지만 물리적 추정과 사실 (史實) 에 의하면 당시의 인플레이션은수출과 의존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야기되었다. 다음 4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있다.

첫째 농산물생산의 증가율보다 심및에 빠른 속도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필대적 심물공급부족에서 야기되었다. 뿐만아니라 H. B. Hulber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출의 증가는 통화량을 증대시켜 모든 필수품의 가격을 등귀시켰다.

둘째 이와같은 수출증가는 농촌 인구의 일본무역상인과 이에 예속된 그리고 농촌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도고상인구룹이 농산물 매집행위와 농산물 수매장금대여 행위를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관리와 결탁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종착에 따른 농업생산감소에 관계없이 수출은 증가하였다.

셋째 일무역 또는 약탈무역에의한 한국산 금(金)의 수출은 일본의 금본위제 확립에 기여하고 일본화폐의 가치안정과 미의경제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한국화폐의 상대적 가치저락을 가져와, 화폐제도면에서 인플레이션의 제도적요인을 이루었다. 넷째 일본무역상인은 한국의원시자본의 독점을 기반으로 일본화폐의 직접적 국내유통과 외환무기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안정된 일본화폐의 국내유통방은 한국화폐시세를자주할 수 있는 것이었고국내화폐 상품 가능을 함으로써 초과수입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되었다. 토후기의 메카니즘은 다음과같은 것이었다. 즉 일본무역상인은 우리의 무역항에서 수출을 농산물을 구입함에 있어 우리 화폐시세가 저락되리라 예상될때 우리화폐 또는 일본화폐로 구매력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화폐로 표시된 어음을 발행하고 우리화폐 시세가 저락된 후에 이를 사서구매력전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원시적이나마 수출및의 활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시기의 인플레이션을 「개항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수 있을 것이다.

4. 근대화에 미친영향

무역과 악성인플레이션이 라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한국봉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첫째 개항은 비자생적으로 농업을 급속하게 상업 농업으로 전개시켰다. 농업생산의 연평균 4~5%에도 못미치는 낮은 생산기술조건아래 일본 상인자본과 그에 외존된 객주·여각등의 도고상인그룹에의하여 강행된 연평균 50%내외의 수출의 증가는 농촌의 빈곤화를 수반하는 상업적 농업의 전개를 촉진시킨 것이라고 할것이다.

화장원의 일본파견 비용, 부산 인천 원산등의 개항비용, 무기구입비, 신식군대 설치비용이었다. 이렇게 볼때 방오전의 발행은 개항에 따른 제경인플레이션, 폐상요소를 재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종합해야 할것이다. 개항초기 악성인플레이션은 수출및 외람인플레이션에 제경인플레이션, 폐한된 것이었으며 그 이는것도 개항체제 (開港體制) 자체에서 오는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시기의 인플레이션을 「개항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수 있을 것이다.

4. 근대화에 미친영향

무역과 악성인플레이션이 라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한국봉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첫째 개항은 비자생적으로 농업을 급속하게 상업 농업으로 전개시켰다. 농업생산의 연평균 4~5%에도 못미치는 낮은 생산기술조건아래 일본 상인자본과 그에 외존된 객주·여각등의 도고상인그룹에의하여 강행된 연평균 50%내외의 수출의 증가는 농촌의 빈곤화를 수반하는 상업적 농업의 전개를 촉진시킨 것이라고 할것이다.

둘째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생활필수품 특히 식량의 물가가 선도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상황에대한 영국 영사관 보고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인천부사 (仁川府史)에 나타난 인천지역의 물가가 그러하였고 신문에 보도된 당시의 서울지역 물가가 그러하였다.

그러면 이 악성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문제는 최근까지 충분히연구되지 않았으며 연구성과 지체도 오류에 빠져 있었다.

최근 김준보교수의 연구는 이문제를 어느정도 바로 잡고 있다. 과거의 연구결과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대개 저질의금속화폐=당오전의 남발에있거나 농산물 흉작에 있다는 것이었다. 당오전의 남발도 그 원인이 상업의사치, 개정의 문단, 관리의부패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준보교수는 이들 견해가 피상적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복잡과 원인을 카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은 무역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주장한다.

물종분하지만 물리적 추정과 사실 (史實) 에 의하면 당시의 인플레이션은수출과 의존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야기되었다. 다음 4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있다.

첫째 농산물생산의 증가율보다 심및에 빠른 속도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필대적 심물공급부족에서 야기되었다. 뿐만아니라 H. B. Hulber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출의 증가는 통화량을 증대시켜 모든 필수품의 가격을 등귀시켰다.

둘째 이와같은 수출증가는 농촌 인구의 일본무역상인과 이에 예속된 그리고 농촌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도고상인구룹이 농산물 매집행위와 농산물 수매장금대여 행위를 조직적으로전개하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관리와 결탁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종착에 따른 농업생산감소에 관계없이 수출은 증가하였다.

셋째 일무역 또는 약탈무역에의한 한국산 금(金)의 수출은 일본의 금본위제 확립에 기여하고 일본화폐의 가치안정과 미의경제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한국화폐의 상대적 가치저락을 가져와, 화폐제도면에서 인플레이션의 제도적요인을 이루었다. 넷째 일본무역상인은 한국의원시자본의 독점을 기반으로 일본화폐의 직접적 국내유통과 외환무기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안정된 일본화폐의 국내유통방은 한국화폐시세를자주할 수 있는 것이었고국내화폐 상품 가능을 함으로써 초과수입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되었다. 토후기의 메카니즘은 다음과같은 것이었다. 즉 일본무역상인은 우리의 무역항에서 수출을 농산물을 구입함에 있어 우리 화폐시세가 저락되리라 예상될때 우리화폐 또는 일본화폐로 구매력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화폐로 표시된 어음을 발행하고 우리화폐 시세가 저락된 후에 이를 사서구매력전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원시적이나마 수출및의 활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시기의 인플레이션을 「개항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수 있을 것이다.

◆일제는 우리나라산 면화의 수탈에서 보다 지능적이고 악랄했다. 그들은 목랑 낭면 (牧羊棉花) 이란 말까지 만들어 수탈해갔고 그로 말미암아 국내 전통 면방 수공업은 붕괴하고 말았다. <지진은 목로합을 통한 면화의 대일 반출광경 (1927) >

사설

「동시통역 대학원」 설립에 즈음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1979년 5월1일자로 설립인가를 받아 오는 8월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 동시통역대학원을 개설하게 되어 현재 석사학위과정 60명과 연구과정 약간을 모집중에 있다.

이는 1973년부터 정부의 관계부처와 본대학이 수차에 걸친 협의와 연구를 거치고 외국으로부터의자료수집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 오던중 1978년에이르러 문교부 당국과 본대학 학장의 주도에 의해서 동시통역사를 양성하기위한 장단기 계획의 일환으로서 출발하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문명이 발달되면 필수록 시간과 공간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우리들의 생활방식와 의식구조는 국내에서 보다 국제사회에로 그영역 (領域) 이 옮겨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경제성장과 외교력 신장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해야하며 더우기 우리는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기울을 · 다짐해야하는 시기에 임하고있다.

이같이 중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각종 국제회의의 오색지붕 넘도록지 있으며아울러 세계와 더불어 호흡하는 외대인으로서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되어있다. 이에는 많은 책임과 의무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하며 안일한 방심이나 방관은 금물이라하겠다.

이번에 동시통역사를 양성하기위한 대학원의 전공별 구분은 한국어를 주축으로한 7개 중요외국어와 4개 기본외국어를 주축으로 한 7개 중요외국어의 외 교차적 동시통역전공을 하게된다.

특히 한국어동시통역사는 2년간의 국내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외국어동시통역사는 교육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1년은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며 나머지 2년은 관계 외국에서 교육을 받게되어있다. 이는 단순한 외국어만의 교육을 받는것이 아니라 본대학의 교육내용과 같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바탕으로한외국어 교육이실시됨정으로보인다.

이러한 다목적 교육을 위하여 본 대학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7개국의 유수한 대학과의 각종 제휴를 모색하였으며 이는 장차 각종 국제회의를 한국으로 유치함수 있는 계기가 기틀을마련한것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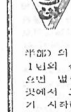
또한 동시통역대학원을 수료한 자들의 자격은 전세계에서 활동할수있는제반 여건들을 갖게 됨정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는 비단 한개인의 보람만이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크나큰 공헌이 하지않을수 없다. 본대학이 설립되기 불과 사반세기밖에 되지않기만그동안에 쌓아놓은 공적과 위권은 세계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가지 사실들이 실증해주고있다.

본대학은 타대학과 같이 단순한 인재만을 양성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보다더 넓고 깊은 인격도야를 바탕으로 생아솔된 지식을 국가발전에 투여하는 · 동시에 인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특수대학인 것이다.

이년에 개설된 동시통역대학원의 설립이 인류의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비의 계기라고 본다면 앞으로 본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이 약속되어 있을진데 오랜명의 외대 가족과 더불어 동시통역대학원의 설립을 충심으로 기뻐해마지않는다.

개항은 근대화라는 도식은잘못돼

무역과 인플레이션은 식민지화를의미



▲유월에 내리는 비를 보고, 누군가가 눈이 내린다고 이야기한다면 참으로 터무니 없는 일일 것이다. 유월의 비가 때로는 눈처럼 생각되는 일과, 복잡히, 캠퍼스의 1년을 반으로 갈라놓고 보면 유월은 그 전반부 (前半部) 의 맨 마지막 장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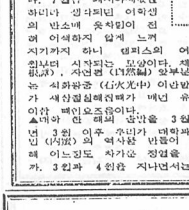
1년의 전작가가 3월중 시작하는가실 6월 벌써 무더위의 기운이 교정 곳곳에서 고개를 치어 들기 시작한다. 「스트로베리 시즌」이가 하는 단 1월에 나오는 저 유명한 딸기도 벌써 한창때의맛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 낭만의 미여가 갔아 놓치기가 원통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캠퍼스에는 이가을에 찾아오는 정말 다. 7월과 8월사이에 있을 하리라 생각되는 이학생의 반소에 옷칠이 전혀 이해하지 않게 느껴지기까지 하니 캠퍼스의 어름은 유월보다 시작되는 모양이다. 채큰달 (꽃봉오리), 시년월 (四月鳥) 앞부분에 나오는 시화광중 (石火光中) 이라는의 의미가 새삼절실해지게 느껴진 유월을 갖이 이라 때이오죠을이다.

▲매우 한 해의 중반을 3월로 친다면 3월 이후 우리가 대학과 자임에 나가기에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도 차라는 정없을 지내왔을까. 3월과 4월을 지나면서는 조전반 사적으로 온갖 형사의 물결속에 몸을 내맡길수 있었고, 그 어슬으로 5월을 맞이하면서, 중간고사와 계작을 드립게 게 넘었고 오월말부엔 다시 각종 체육대회라는 휘겨루기 형사를 통해 유대감을 만끽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부사의 유월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한달 남짓 남겨놓은 한학기의 월력(月曆)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최선이나 불만의 해력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꼬문위에 각종 행사를 합리는 필력이는 현수막이 대학의 실체일 수도 있고, 이렇듯 만남인 실체를 구성해주는 요소는 제한되어 있지않다.

▲이러저 역사는 인간의 생활구조를 구성해주고, 공간으로는 인간이 그역사를 생성시켜 나가는것이라면 대학의역사도 많은 선배 대학인의 손에 의해 가공(加工)되어 온 흔적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학사회에 들어내려는 대학역사의 모습은 아직 완벽한 틀이 잡혀지지 않았다. 1년 혹은 한학기를 단위로 하나의 정식 (定式) 처럼 대학역사가 일상생의 관점에서 만 복원해, 유월에 해를 마감하는 12월의 눈처럼 느껴질 수도있을 것이다. 통합과 정리 (整理) 이 주년에게 절주이 적이하겠지이다. <월>



1979學年度 後期

貿易大學院 學生 募集要項 (夜間)

1. 募集學科및 募集人員
(1) 貿易學科 (2) 貿易經營學科 } 各 150名

2. 應募資格
(1) 대학(교)졸업자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3) 대학(교)졸업자로 1979年 8月 末까지 군복무를 필하고 전역증명서 소지자 (4)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79年 8月 末까지 군복무를 필하고 전역증명서 소지자 (5) 다른 部門에서 專攻者로 본 대학원 입학자격을 인정받은 자

3. 試驗科目
(1) 貿易學科 ① 貿易論 ② 國際經濟學 ③ 英語 (2) 貿易經營學科 ① 貿易經營 ② 國際經濟學 ③ 英語

4. 提出書類
(1) 貿易學科 ① 入學願書 (本校所定用紙) 1부 ② 履歷書 (本校所定用紙) 1부 ③ 卒業證明書 (原本) 1부 ④ 成績證明書 (原本) 1부 ⑤ 戶籍謄本 (本人 및 父母 및 配偶者 각 1부) ⑥ 寫眞 (6매) (2) 貿易經營學科 ① 入學願書 (本校所定用紙) 1부 ② 履歷書 (本校所定用紙) 1부 ③ 卒業證明書 (原本) 1부 ④ 成績證明書 (原本) 1부 ⑤ 戶籍謄本 (本人 및 父母 및 配偶者 각 1부) ⑥ 寫眞 (6매) (3)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1)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4)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2)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5. 志願書 交付및 接受期間
(1) 交付 : 1979年 6月 11日 (金) 부터 (2) 接受 : 1979年 6月 11日 (金) 부터 21日 (土) 까지

6. 受驗票 交付및 留意事項傳達
(1) 交付 : 1979年 6月 23日 (土) 午後 1時 (2) 傳達 : 本學院에서

7. 試驗日時및 場所
1979年 6月 23日 (土) 午後 2時 以後 本 大學院에서

8. 合格者發表
1979年 6月 28日 (土) 午後 2時

9. 志願書代金및 受驗料
(1) 志願書代金 : 2,000원 (2) 受驗料 : 8,000원

10. 特典
(1)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본 대학원 입학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2)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1)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3)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2)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4)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3)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5)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4)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6)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5)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7)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6)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8)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7)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9)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8)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10)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9)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11)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10)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11. 其他
(1) 本 大學院에서는 1979年 6月 15日 (金) 부터 (2)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1)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3)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2)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4)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3)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5)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4)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6)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5)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7)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6)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8)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7)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9)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8)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10)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9)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11) 學士學位 소지자 및 專攻者는 위 (10)의 ①~⑥ 및 學士學位 證明書 (原本) 1부

韓國外國語大學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里門洞 270番地
電話直通 ☎7118 (교환) 1810

이이안 과 Christian Dior 이
기술제휴를 맺었읍니다.

Christian Dior 이 이제부터 한국시장에 선보이게 되었읍니다.
부라자·거들·스타킹·란제리·수영복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 시장에서 비비안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남영나이론이 드디어 세계적인 Christian Dior과의 기술제휴로 Christian Dior 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읍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기술과 정성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Christian Dior 의 생생한 세계를 펼쳐 드릴것을 다짐합니다.
세계로 발돋음하는 여성제품 메이커 남영나이론 ———.

이름처럼예쁘고
이이안

*크리스찬·디올사와 기술제휴 조인식광경 (78 12.11)

귀은멋*높은품위
南栄나이론

개교 25주년, 발전을 위한 타진

(3) 선행조건으로서의 연구분위기

차 례

1. 프롤로그
2. 선행조건으로서의 「학생복지」
3. 선행조건으로서의 「연구분위기」
4. 캠퍼스 부지 확장 문제의 타진
5. 이공대 설치나 복수 종합대학이냐
6. 종합대학이냐대학 관심도 「어론조사」
7. 관계교수및 당국자의 좌담

종합대학화 그 방안은 무엇인가

글이 종합대학화를 위한 선행조건의 일개 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연구와 교수(敎授)의 학문적 분위기를 확립함이는 법률는 이미 그 자체로서 대학 본래의 사명이요, 「삶이있는」 대학이 마땅히 갖춰야 할 표대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교수의 직접적인 주체로 볼수 있는 교수와 학생, 이를 양자가 이 법률를 바탕에 두고 출발하여 나름대로 특은 상효간 어느정도는 노력해 나가는가에 한 대학의 현위 존재가치 여부가 좌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새삼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대학이 개교25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종합대학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학문 연구분위기 성숙과 확립을, 이 기회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를 정방침하는 대학당국의 현실적, 영향적 지원이 1차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요소로 볼수 있을 것인 만큼 이 요소들의 개량적인 검토는 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지다.

이에 따라 우선 교수의 입장은 연구활동과 학문의 수로서의 교수활동에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야 함이 자명하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학내에서 교수의 존거감을 크게 나누어 강의실과 연구실이라고, 볼때 이 두개의 본거지는 연구와 교수활동을 통한 유감없는 진리발굴과 학문리수의 산실이 되어야 함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본대학 교수연구실의 제반현황을 보면, 교수연구실은 보잘이 없는 전임교수에 한해 1인당 1실, 외국인 전임교수에게는 1인당 1실, 실부는 2인당 1실씩 배당 되어있다.

대부분의 연구실은 도서관 5층에 배정되어 있고 외국인교수 연구실등 그 일부가 대학본부에 소재하고 있다. 이때문에 도서관건물 5층에 연구실을 갖고 주로 외국어학부의 강의실로 이용되는 인문과학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의 경우, 공강시에 시간을 연구실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실토하고 있다.

또한 전반복도로 교수연구실의 장서비치현황도 의외로 빈약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교수제도, 도서관 개가식 운영등 장기적 안목으로 발전 계획 입안 절실

이로 인하여 교수는 「같은 공강시간 사이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도 어려운 까닭에 강의를 끝내어만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연구는 자택에서 할 수도 있으나 장서를 분산해서 연구실에 둘 필요는 없지 합겠느냐」 고 말하고 있다. 이런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연구실은 화려해야 한다. 외양적으로 우선 화려하게 꾸며진 속에서 제대로의 연구활동과 연구업적이 파생되어질 것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고 말하는 교수도 적지않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때 우선 주목되는 것으로 교수가 연구실내에 전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해 두지 않을수 없다.

시설문제에 못지않게 교수실 내지 연구실의 위치도 문제시됨에 따라 학부별로 연구실과 교수실을 실치한다면 여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학부별로 교과과정과, 강의, 연구등에 걸친 제반 사항을 협의,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학내 행사점에 관련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융통성있는 행정을 밟히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수와 학생간의 접촉도 활발해질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연구실과 장서실을 중심으로 의형제인 학문연구와 전수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 라이는 미학실장부는 그 기반을 제공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작년 신축도서관의 개관이래 과거보다 현저히 도서의 제반여건이 나아졌으나 시험기간때마다 도서관 열람실의 좌석부족현상은 말끔하지 못하고있다.

또한 도서관 장서및 도서대출에 있어서도 14만여권의 장서를 비치하여 이학관계점에 있어 좋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기타 분야의 서적부족현상이 자주 논의되고 있어 도서확충도 절실한 과제라할 것이다. 14만권이라는 도서량은 대학도서관의 장서량으로서는 결코 좋분한 것이 못된다는 것뿐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비치되어있는 도서량도 충분히 더러 이용되고 있느냐하는점은 「학생, 교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겠다. 그러나 작년 2학기의 도서대출량이 5만여권에 달했던 사실은 그리 불만스런대출실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지금 벌써 대학에서 도서대출량실을 개가식으로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슴을 볼때 다소간 시행상의 여기놓을 부족요인도 파악하게 개가식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것 같다. 손쉽게 책과 접하기위해서는 책대출에 있어 불편한 절로가 놓여있다는 선입관념을 갖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함수있는 방안으로 개가식운영이 채택되어지는 길을 앞당겨야할것이다.

도서관의 확충에 있어서는 도서심의위원회를 조직, 도서선정을 거쳐 책을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있는 모파회 S교수는 얘기한다.

연구분위기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라는 본 기획의 의도에 따라 J과의 M교수는 연구교수제도등이 아무튼 개교 25주년을 맞는 지제에 본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과 같은 master plan이 입안되어 긴안목으로 종합대학화를 비롯한 제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학교당국 을 중심으로한 공동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분위기 확립의 주체적 인자로서 교수와 학생의 자발적이고 건설적인노력과 함께이를 뒷받침하는 대학당국의 정단설있는 양책, 질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만 를등이다.

<기획부>

굴인가 탱자인가 외대와의 점검

—제도와 인식의 정착을 점검한다

우리사회의 경제구조에 있어 이원 경제제도의 정착과 부동(浮動)을 논하기에는 많은만제가 있으므로 이 시리이즈의 이번 난을 통해서는 최근 거듭되고 지적되고있는 이상(異常) 소비풍조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 소비성향이 급격히 상승해도 좋을 만큼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가지고 있는것인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옳을것 같다.

우리 인간이 즐겨게 느끼수 있는 제 1차적조건 (필요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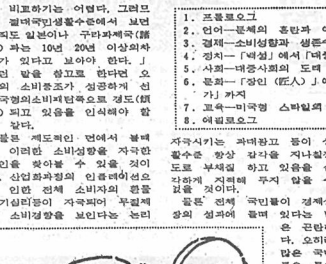
오늘의 소비성향을 논의할때는, 전체국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고찰과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경제는 비약적 신장을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때 현재의 소비풍조가 우리 경제력 생존수준의 신장세와 보조를 같이한다고 전제한다면 전혀 논의밖의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소비유형이 오히려 앞서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분히 주려의 소지를 남고있는 듯하다.

현재 통계상으로 나타난 경제성장의 결과에 의거해, 박국세칙 선진제국(諸國)과 비교한다면 미국이나 구라파 제국(諸國)보다 20년 정도, 이웃 일본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이 하기된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여거한 유럽제국이나 일본의경우와 비교해 볼 때 국민생활수준에서 그렇게 많은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단정짓기 쉽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의소비패턴이 문자그대로 선진국형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해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나라가 연전의 1,000달러 1인당소득을 실현한 78년만 하더라도 적어도 소비성향을 포함한 전반적 생활수준이 10년전의 일본, 20년년전의 유럽수준을보여야 할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등한 차원의 수준에서 소비성향을 보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외국의 소비패턴이 성급하게 끌뜬 수용(受容)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음과 같은 모 교수의 이론을 검토해보면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10년 혹은 20년의 간격은 사실은 한 차이가 됨 수 없다는선지대만도 한나라의 물가법등이 있는한 동침가지도 변동하기 때문에 경상가격으로 표시한 국민소득을 비교연도가 다른 소득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결대국민생활수준에서 보면 아직도 일본이나 구라파제국(諸國)과는 10년 20년 이상의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런 말을 참고로 한다면 오늘의 소비풍조가 심광한게 선진국형의소비패턴학으로 정도(程到)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 볼때도 이러한 소비성향을 자극한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과정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체 소비자의 환물투기심리등이 자극되어 무절제한 소비경향을 보인다는 논리



◇많은 국민들은 물가상승문제, 분배에대한 집의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자유시키는 과대광고 등이 생활수준 항상 감각을 지나칠정도로 부채질 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전체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성과에 들떠 있다는 말은 곧만하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물가상승문제, 분배에 대한 정의문제에 민감하게반응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히려 국민생활수준향상감각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본다면 오늘날의 사치성 소비풍조는 확대됨 증상증이나 고소득계층의 영향때문이라고보아도 좋을것같다.

62년도의 89달러 국민소득에서 78년의 1,000달러 국민소득에 이르기까지 족12배 만큼의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활화에서 선진제국을 흉내냄 소비풍조가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될 시점에 이를것 같다. 아직 우리 경제구조는 「결핍의 모순」 보다 「과잉의 미덕」 이 강조되는 입장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편집부지공>

경제-소비성향과 생존수준의 괴리

1. 프롤로오그
2. 언어—문체의 혼란과 어투의 범화
3. 경제—소비성향과 생존수준의 괴리
4. 정치—「대성」에서 「대중」 까지
5. 사회—대중사회의 도래
6. 문화—「장인(匠人)」에서 「예술가」까지
7. 교육—미국형 스바일의 풍미
8. 에필로오그

성급한 미국·일본형 소비패턴 제동은 절실

선진국 소비패턴 무절제 수용 검토돼야 소비유형이 경제 수준 앞서는 게 문제

이 생존수준이상의 소유와 향유라면 제2차적 조건(충분조건)은 다른 사람, 다른나라의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그수준이면 되지않겠는가 하는것이라고 어느학자는 이야기했다. 이어서 「인간은 결대적으로는 생존수준이상의 가정(所有)과 누림(享有)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는 관련한 상태의 기쁨과 누림이면 되지않겠는가」 하고 부언해 두고 있다.

소비패턴이 성급하게 끌뜬 수용(受容)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음과 같은 모 교수의 이론을 검토해보면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10년 혹은 20년의 간격은 사실은 한 차이가 됨 수 없다는선지대만도 한나라의 물가법등이 있는한 동침가지도 변동하기 때문에 경상가격으로 표시한 국민소득을 비교연도가 다른 소득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결대국민생활수준에서 보면 아직도 일본이나 구라파제국(諸國)과는 10년 20년 이상의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런 말을 참고로 한다면 오늘의 소비풍조가 심광한게 선진국형의소비패턴학으로 정도(程到)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 볼때도 이러한 소비성향을 자극한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화과정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체 소비자의 환물투기심리등이 자극되어 무절제한 소비경향을 보인다는 논리

자유시키는 과대광고 등이 생활수준 항상 감각을 지나칠정도로 부채질 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전체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성과에 들떠 있다는 말은 곧만하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물가상승문제, 분배에 대한 정의문제에 민감하게반응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히려 국민생활수준향상감각을둔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본다면 오늘날의 사치성 소비풍조는 확대됨 증상증이나 고소득계층의 영향때문이라고보아도 좋을것같다.

62년도의 89달러 국민소득에서 78년의 1,000달러 국민소득에 이르기까지 족12배 만큼의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활화에서 선진제국을 흉내냄 소비풍조가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될 시점에 이를것 같다. 아직 우리 경제구조는 「결핍의 모순」 보다 「과잉의 미덕」 이 강조되는 입장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편집부지공>

"사회과학 방법론의 토착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를 찾아서

「사회과학」이란 음어가 일반대중들이 느낄정도로 이방에서 본격적으로 기틀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우기 이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학문적 가치를 파악, 전공하여온 사회과학이론이나 방법론에의 포괄적인 문제제기와 의견교환이 복잡된점은 아주 최근의 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가령 60년대이전의 사회학계를 주도한 미국 구조기능주의라는 사회학 이론과 실증주의 및 형태론이랑 사회학적 방법론에 반기(反旗) 를 들어 나타나게 된 인간주의 사회학, 현상학적 사회학 또는 사회학의 사회학, 비판사회학, 실증적 상호작용론 등등 사회학의 제주장들에 관한 숱이한 하더라도 특히 우리. 의대생의면에 퍽낯선 편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대학의 성격상 의대생에게 「지엽적인」 weak point이기도 한 이방면에의 관심과 이해증진을 기하련는즉심스런 의도로, 기자는 어제도 서계선교세미나실 5층에 자리잡고있는 「한국사회연구소」로 발길을 옮겨보았다.

「지리 연구소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은 지난1976년12월이었으나 연구소 자체의 본격적인 활동은 개시되고 외부사람들에게까지 후대가 알려지게 된 것은 이듬해 3월26일에 개최된 「한국사회과학의 오늘과 내일」이 과학이 어떻게 기여해야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이후 학계의 중대한 이슈로 떠올랐다고 덧붙인다.

개소기념 세미나 이래 사회과학 연구소는 사회현실을 꼬집음하여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이론체계 및 논제의 개소 (開所) 기념세미나이후부터 일 것인니다. 」

사회과학 연구소의 연혁과 사업내용 등을 설명해주는 한 한계자는 이 세미나가 제기됐던 사회과학의 토착화에 따르는 문제점, 국가발전을 위해 사회과학 방법론의 현실접근 과학자 태도를 규정하는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 사회과학이론 정립에 속한다고 한다.

◇지난1977년 3월26일개최되었던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개소(開所) 기념세미나광경. 학계의 원위자 21명이 참가하였다.

"방법론은 현실접근 과학자 태도를 규정"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 사회과학이론 정립해

자칫하면 연구소장과 차인원(서울대) 교수 법대가 도맡아사회 해지 만들어진이 연구소는 원래 미국의 캘리포니아(New york Adelphia)에서 유학한 두 사람이 현재에서 본 사회과학연구기관에 깊은 감명을 받아 오랜기간 추진해온 끝에 결실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경북 차원이든 특정지방고등의 수준이든 거의 재정지원 같은 것을 받지 않아 완벽한 독립연구기관임을 자신있게 내세우는 이 연구소의 학문적 경향은 역사적학적 방법, 구조적·기능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으로 대별되는 현대사회학의 방법론 중에서도Husserl 등이 주동이된 현상학적방법에 학간 경도된 인상을 주고 있긴 하나 일견 (日後) 한 연동의 초기단계인 만큼 복합한 요소를 내세우기보다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천명한다.

특히 사회과학방법론의 토착화를 제일의 (第一義) 로 상고하는데에 대한 배경은 「방법론은 현실을 보는과학자의 태도를 규정하기때문에 어떤 방법론을 택하느냐에 따라 연구대상이랑 마저의 이론 방법의 방법도 정해진다. 」 <사회과학총서 제1집 서문>라는말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현재 한국 특히 서울에서 신생부흔으로각광받고 있는 여의도의 한모퉁이에 자리잡아, 튼튼히 주춧돌 지탱하는 정단력 지주로써의 의미가그장소에서부터드러나고 있다면 지나친 비일까. 발표회지합는 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요, 연구결과가사장(死藏)되어갈경우에는연구의 가치란 없다고 하는 의미심장한말을 되씹이면서 기자는 생소한문이로 어수선해진 머리를 흔들면 건물을 빠져나왔다.

<정길화 기자>

PUSH-UP 10회실시!

○…근자에 들어 무수한 존삼즈들이 수업시간에 5분쯤 늦는사례가 빈번해 교수님으로부터 「상습 배업주의자」로 경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

진상을 알아본즉 강의시간을앞당주는 지 유명한 음악공소리가 울렸더 안 울렸다 하기때문이라는데, 남학생으로 폴리기에 일월난 괴변(?)이기에 명하노니 즉시중 제군, 하나에 정신, 둘에 뚱일 Push-up 10회 실시한다. 실시!

○…지난 29일 배룡 사격장에서 열린 제4회 꼬내 사격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하소연」이 본란에 게재하여 주길을 열어보니, 반(半) 이상 차단되다시피 심내는 한등박을 맞췄에 했는데 헛실까지 끝고서 안갚힘을 써가며 표적을 거누니 올아지는 법이 있을가밥 정도였다는것.

사격결과가 신공치 않은 일부동산조의 변명이기도 하겠지만 관계자의 사전점검이 아쉬웠다는중론, 총력안보로가는 길은 그때서 심지않은것. 허나 훈련이니 서울한 길일 (吉日) 을 택하는 요령도 있어야….

○…재학생 건강진단의 일환으로 보건실에서 마련한 2, 3, 4학년을 대상으로한 X-ray촬영 검사에 대상자의 40%에도 못미치는 952명이 참여 그쳐 「기록 보였다고.

사형 것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총2700여명중 2207명이 촬영을 받았다고 하니 올해는 검진을 저조 대표신 (?) 을세운심.

한 관계자의견에 따르면 촬영기간을 조금해 학보가 휴간중이어서공지 (公知) 가 제대로못되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생상 공기 (公器) 로서의 사명감을 결실히 느끼는 터.

○…불경의 아공지곤에서 RO TC설로이 노랗임이 사복을 입은 채로 활보하고 있다는 소문이퍼져 한계자들을 긴장 (?) 시켰다 는데 알고 보니 「입영전야」의 1학년 준상즈들이었다.

긴한가 하면, 올해의 제6차입소인 본대학교의 예비역 학생들이 입소훈련마상자에서 제외되어 해방자들은 안락으로 시세등의는 길을 받는다고.

그러나 오주의, 열흘동주부터는 혹시 「유급…?」 등으로 오인받지도 모를 일.

○…서어를 배워 체육의최기발어려 연일 한잠이 운동장을 진동해 이분발에 때아닌 축제바람이 불어온 느낌이라는데.

보통 진입로에 놓이실 현람한 조스틸기 조한해 「비서어울자」 들로 하여금 소외감에 젖게 한다고.

하튼 뭐는 장자곤 있더니, 하나 가랑 만치 일일 마여야, 외부 손님을 초대라도 했었으면 소외감은 한층 덜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요.

때 아닌 축제바람

이달 크로니클

현대에서 施工한 韓國에탄올工場

미래 창조의 주인공이 되려는
우리의 집념은 같습니다.

꿈과 낭만이 함께하는 젊은이의 크고, 작은 세계—
이 세계속에 조국의 밝은 미래가 가꾸어지고 있읍니다.
뜨거운 정열과 투철한 신념으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젊음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우리는 번영된 조국, 희망찬 내일의 모습을 봅니다.

조국 번영의 의지를 세계에 심어가는 現代

現代

시대속의 인물 in 기대사

시리즈④

유진 오닐의 생애와 작품의 긴밀성

김 응 수

「아들은 무위도식하는 영웅이니 더이상 사고를 칠 내도록 학교생활에 순응하여주시오」이 글은 유진 오닐의 아버지이며 미국의 남반연극「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배경의 주상적인 배우가 된 제임스·오닐이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극작법 교수인 베이커교수에게 보낸 서한문의 한토막이다.

오닐의 아버지는 아들이 오랫동안의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극작공부에 몰두하는 데에 기뻐하기는 커녕 귀찮게 여겨지는 불량배로 취급하여 아들의 장래에 기대하지 않았다. 미국의 연극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게 한 원동력인 오닐이지만 그의 집안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아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요소가 많았던 것 같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가혹함, 그의 병의 정신적, 신체적 탁락이 주는 힘들한 정경, 실지어 어머니가 마약상습자라는 사실과 그 자신의 복잡하고 불행한 생활형태, 즉 대학을 1년 다니다가 정학당한 후 신혼생활, 시골신문 기자생활로 방황하다가 결국 폐결핵으로 요양원 생활을 하게되고 불우한 결혼생활에서 얻은 자식마저 처음에는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교수였으나 어떤 이유로 무능한 주정뱅이가 되어 오닐의 초기 작품「아침식사 전」의 주인공처럼 연도로 걸음을 걸고 자살하는 비극을 연출하고 그의 말마저 오닐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 당시 아버지 나이와 비슷한 노희극 배우 작살스·제롤린과 결혼하여 아버지를 버렸다. 「내 일생의 유일한 희극의 한 토막」이라고 제롤린과 결혼한 말을 가볍게 조소한 그는 임종을 맞을 때 주변을 둘러보고 침대에서 혼자 튜을 일으켜「조명방에서 떠어나 제기할 조명방에서죽어나다」이렇게 외치며 그의 불행한 생을 마쳤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극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여실(J.J.說)도 해보고싶다.

사실 오닐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중무한 이념을 마찰으며 일반적인 사사적(的事的)이고 일시적(一時的)인 문제는 피하고 인간, 죽음, 사랑, 종교와 같은 보편적이면서 추상적인 면을 취급했다. 그의 명이 상학적 표현은 현실에서도 피하여 정신적, 정서적으로 독립된 마음의 세계를 설정함으로써 현실의 세계와 손을 끊었다. 오닐은 인간대 인간의 관계보다 인간대 신의 관계에 흥미를 갖고 현대극작가의 입무는 현대가 지닌 빈곤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이며 낡은 신

◇오닐작「밤으로의 긴 여로」중의 한장면.

념을 인정받은 「지평선 너머」로 퓰리처 희곡상을수상한 후, 3회의 퓰리처 희곡상과 193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닐은1934년가지 계속해서 작품을 발표했으나 그후 12년동안은 타작(多作)을 했음에도불구하고 발려지지않은 시선으로 작품발표를 중단했다.

미국이 낳은 20C의 세계적 극작가 중에서 가장 불란권한 권에 속했지만그의 희곡이 지니는 다양성과독수성을분석하면 오닐의 실제인생을 통한 인생의 의미와 이념을 확정하고 있으며 문학적 능력이 부족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학과 언어를 세계의 극장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니체와 유사한 작가 스트린드베리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받고 영감을 얻었으면 프로이드의 음을 통해서 그 결과를 예시한 그의 희곡은 자연주의계열의 초기작 <선원생활을 통한 바다의 경험>과 상징적인 표현주의와 프로이드 심리주의적인 중기의 작품 그리고 후기의 자서전적인 자연주의 작품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그의 자서전적인 작품인「밤으로의 긴 여로(1941)」는 오닐이 죽고난 뒤 1956년에 공연된 것으로 문학적으로 가장 훌륭한 희곡으로 이해되는 작품 발이 리바이벌되는 작품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단「거론」대표>

불운한 생활, 좋은극 탄생시켜

인간의 죽음·사랑·증오를 소재로 —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도 수상

—필자 주—

본보사정에의해 5월21일자의 류다오로「증간고사」에 대한 글을 모집했던 사람마루가 나가작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고해 주신 독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많은 투고 있으시길바랍니다.

이 문 꽁 뜨

박 대 성

오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오후. 그녀는 박히 할일이 없었으므로 무료정 거리를 쏘다녔다. 그러면 그녀에게 문득 모짜르의 개인전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막상 그림 구경을 하고 싶다면가 하는 생각은 없었지만 또그림하고 무슨 관련은 있도 없었고. 마침 한낮가가 화창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므로 그녀도 화랑안으로 들어갔다.

화랑 안에 들어서서 데개회사람들이 모여 그림못이. 그녀는잠깐 어리둥절한듯한 표정으로 어디에부터 눈을 주어야 할가를 각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화랑안을 한바퀴 휘둘러 보았다. 그림에 아주 기가이카지 다가섰거나. 아니면 일찌기 물러서서. 한참 열중해서 심각한 표정이거나 아니면 어서 나가고 싶을때 혹자기를 주시하고 있을. 가을매의 의자에 앉아 파이프를 물고있는 모짜가의 시선 때문에 멈칫거리며 어정쩡한 표정으로 심여영의 사람들이 그림구경을 하고있다.

그녀는 마침내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는 것을 시위하도 하는것처럼 단호하게 한 걸음 떼어놓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들어온 작품은 「구도69」라는 제목의 추상화였는데 잘만 들어다보았지만 일 감흥이 일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다음 작품 앞으로 갔다. 그리고 그작품에서도 그녀는 별 감흥을 받을수 없었으나 마음을 한번 쉬고 그림을 보기 위해 그녀는 다음 작품 앞으로 갔다. 그리고 그작품에서도 그녀는 별 감흥을 받을수 없었으나 정말 한말씩 쉬고 들리서서 얼마동안 그작품을쳐다 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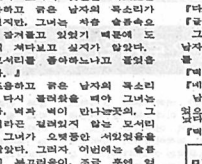
그때그때한 식으로 한두 번의 작품이 끝나는 구석에까지 찾을 때 그녀는 심심하고 지루해졌으며 그림은 재미없고 그림에 관한 말과 무희하지 말하여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정작 무희해야할 일은. 화랑 한위의 것이 아니라. 이화랑은 보오일 오후를 멍들어 지낼 여인 하나 번번하게없는 자기자신의 기구한 운명이랄지. 찌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그녀는조금 슬퍼졌다.

「모서리를 돌아하십니까?」

그때 그녀의 옆귀를 자꼬드는 조용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자슴 슬픔속으로 잠겨들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제다보고 싶지가 않았다.

「모서리를 돌아하느나고 물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야 그녀는 문득. 벅차 벅이 만나는것이. 그 밉이라든 걸려있지 않는 모서리에 그녀가 오랫동안 서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어딘에는 슬픔대신 부끄러움이. 조금 후면 얼



마간의 화가 치밀어 올라오기시작했다. 그때서 그녀는 고개를밟박 젖혀 목소리의 남자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요. 모서리를 돌아해요. 아니. 사람해요.」

목소리의 남자는 그러나 제미있다는 듯이 소리를 낮춰 걸걸거리며 웃었다. 남자는 그녀 도때나 쳐어보는데. 그녀가 화만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웃었다고 생각하기에 중분한 마음 뭉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심 것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보여져야할 것이라는 관념의 중동심때문에 한번더 쏘아볼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때 그것이 도대체 뭐하고 무슨 상관이죠?」

말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느꼈다.

「아니 저는 다만….」

「다만이라노?」

「글쎄 저는 다만….」

그녀의 기세에 눌린 때문인지 남자가 주춤거리자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했다.

「뭐는 다만을 좋아하셨오?」

「네?」

「네? 저는 다만을….좋아한나다. 아니. 다만을 다만 사랑합니다.」

「네. 저는 다만 다만을….좋아한나다. 아니. 다만을 다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소리의 남자와 그녀는 만났다. 그리고 계속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의 깊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때때로 그녀는 그 표요일 오후를 생각하면서 혼자서 슬며시웃었다. 오오. 사랑하는 모서리여!

<스위든어과·2>

「그때는 다만을 좋아하세요?」

「네?」 남자가 의아하다는 듯이 되물었으므로

「그녀는 다만을 좋아하는나고 물었오요.」

「그때에서야 남자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점점에은 미소를 지으며 끝기대 말했다.

「네. 저는 다만 다만을….좋아한나다. 아니. 다만을 다만 사랑합니다.」

그때에 그녀는 그 표요일 오후를 생각하면서 혼자서 슬며시웃었다. 오오. 사랑하는 모서리여!

<스위든어과·2>

자신의 문학과 언어 세계지닌 오닐
미국 연극계에 독자성 불어넣어

남 성 우

유사 이래 오늘의 우리는 과거 어느 현대인보다 더 심상한 「오염」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염 현상은 자연에 국한 아니라 정신에까지 번지고 있다.

거리를 지날 때 매연에 피식되어 기는 기침소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오염의 극히 단순한 한 예에 불과하다.

지상을 통해 보도되는 무시무시한 자연의 오염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강을 비롯한 많은 강이 폐수에 오염되어, 거기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기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자연속에 사는 인간도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오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강의 오염은 서울 시민이 매일 마시고 지는 식수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적신호는 우리의 신체적 오염까지 결되어 있다.

자연의 오염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도전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결과이다. 이젠 일본에서도 자연의 오염이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보도된바있다.

자연의 오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의 오염. 인간성의 오염이다. 신문의 사회면에 나부하는 끔찍한 강인사건 어린이 유괴사건, 거액의 횡령, 임빌부인, 청소년 범죄, 가정파탄사건, 낯설게의 폭력사태…이 모든 것이 다 정신의 오염이다.

자연의 오염이나 정신의 오염에 대한 공격적 제언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법률인적으로 오염의 불법처방 없이나고 있는 자연보호 운동은 인간을 자연의 오염에서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신의 오염은 구제하고 메말라가는 인간성을 회복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의 교육밖에는 없다. 높은 강은 있지만 「오염」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의힘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부교수>

먼저 정신오염 구제를…

원인모를 죄의식 느껴

안 현 주

대부분의 사간들이 혼돈의 반복속에서 흘러가지만, 때로는 문득 무언가 주변의 것들에 대해, 아니면 자신에 대해 정리해보아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답정히 빚어넣긴 머리를 오리로리 때만지게 된 뒤로부터 몸이 바빠지고, 자유로와진듯하지만, 오히려 없어 답답오는듯 한 일들에 스스로를 옭조리는 버릇이 생기고, 연약할지라도께꼬하고 순수한것들, 갖고싶어하는 버릇이 생겼다.

돌이켜보면 어느정하나 때뭇지않고 흘흘지않은것이 없지만 소녀적인 감상을 벗어버리지못하는것도 아마 이에 연유하는것이리가, 한강물이 오염됐다, 부산 앞바다에 색은 울렁울렁 뜰다, 부부에 싸움을 일기나 공인용기를으로 참기름을 만들어 팔았다는 황금만능의 부도덕성에 오염된 상흔이 속속 입간지에 보도됨에 우수에 대해선지모를 분노로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낀다. 어느곳 하나 깨끗을 자리가없이 뿌옇게 시야가 흐려온다. 『이런 세상이되어서야』하고 통탄하는 사람의 한숨섞인 목소리를 들을때면 점점더 원인모를 죄의식을 느끼게된다

그것은 어쩌면 소수의 신력받은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책임감인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갖는 정신적 주림감.

다른 어떤 집심적, 사회적, 외이보다도 인간의 도덕성이나 자연의 오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의 오염. 인간성의 오염이다. 신문의 사회면에 나부하는 끔찍한 강인사건 어린이 유괴사건, 거액의 횡령, 임빌부인, 청소년 범죄, 가정파탄사건, 낯설게의 폭력사태…이 모든 것이 다 정신의 오염이다.

자연의 오염이나 정신의 오염에 대한 공격적 제언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법률인적으로 오염의 불법처방 없이나고 있는 자연보호 운동은 인간을 자연의 오염에서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신의 오염은 구제하고 메말라가는 인간성을 회복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의 교육밖에는 없다. 높은 강은 있지만 「오염」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의힘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부교수>

오 염

사랑마루

다음제목: 장학금
매수: 200자 4매
마감: 6월10일
소이달의 필진
남성우교수 (한국어교육과 부교수)
김영연교수 (아동어과 조교수)
김지수교수 (법학과 교수)

이 문 시 단

꽃 그리고 그 재현

이 광 윤

있음으로
놀림을 한 (眞) 없이 푸어
만상 (萬象)을 다만
겉에 있는것이 아니었다하니.

그것은
머닛처럼 밟았던
길으로의 퍼렐

머나
일테만제의 손길은
아픈 가슴으로
더욱 쌀았다한다.

슬픈 계시로
비 뜸 밟아없어지고
일찌기
어둠이 퍼져간
비 어제을
사랑과 곳으로서
이미지와 하여라.

가늘고 긴
비 존재 흔들리는 곳에서
살고싶고 사랑하고픈
의미로 응답하여
크게 현시 (顯示) 하니

목숨길고
인간을 사랑하는
비 나타남으로
우린
그저 입기씻음이었다.

태양의 빛을 향해.
생 (生)을 향한 조용한 침묵
비
하나 씩은 피려한 불빛이
우리 어정에
큰 그늘이 퍼졌으니.
이제는 또
빛어리퍼어
신비의 태초 (太初) 를
부드럽게 맞이하노라.

<포항스어교육과·3>

외대미술의 산실 되었으면…

—제16회 「외대미전」을 보고—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열렸던 제16회 외대미전은 최기 수사의의 전시회를 가져오는 동안 작품창작과정에 힘린 노력이나 전시회개최를 위한 장기적 수고를 엿볼수 있었다. 다만 모든 미술 동호인의 인정욕적 권함주장을 엿보게 되어 발전적 창작을 기원할 작품이다.

올해 4회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미전은 대학미술의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의 구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커다란 손색없이 전개되었으나,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미술의 첫번째목적이 감상 (鑑賞) 하는 사람에게 감흥 내지는 침잉의 경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때 아마추어리즘에 지나치게 안주 (安住) 하여 보는이로 하여금 감동을 섭사리 불러 일으킬수 있을 가에 입장 외롭을보내고싶다. 그림은시각적체험이다.

작가의 이해보다는 작가의 체험이 시각을 통해서 감상되어지는 만큼 생적인의 신중성과 특별한 색감의구현을 우선 상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작품을 정물화와 풍경화를 예를들다면 정물화는 질감, 양감의 중실한 표현을 복잡해 표현 속에와 명암만을강조한듯 했으며 풍경화는 작가의 노력한 흔적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의평식 (공간의식, 선, 매스 (Mass) 의 전체적조직) 속 그림의 전달자가 사용한색정의 불투명기가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이번 미전을 통해 함께 선을 보였던 서화는 전부의 전부문학에 한정되는것이 아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작가치고 카프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작가는 거의없다. 거의 극음으로 물아상못한 불안과 소외감. 그러한 현대의 주제를 담은 백주 복이하면서도 독자를 끌가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속에 매혹시키고 마는 카프카의 소설. 주술적인 유혹인 천재로서의소외된 사생활이 현대의 모든 세계 작가에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빛뭇 순수작가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던져주고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에 소속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세계에도 소속되지않은 이방인은 존재를 갖지 못한다. 아프카페페스의 점은 동시에 존재의 「유형지」라고 하는 비극적인 카프카의 생애를 끄덕하였속일 박물이라는 이면 (裏面) 을 갖고 있다. 이것의 이해없이는 존재문학인 그의 작품구성을 알수없을것이다. 어떻게 이출현의 세로지대에서 발출하고 어떻게 세계로의 인장과 소속을 허용받고 존재의 가치를 획득할가 하는 존재론적인 문제가<소송>을 최대의 예로 하는 카프카의 모든 작품은 유일한 근본테마인 것이다. 다시말하면<소송>이라는 작품을통해 카프카의 문학세계를 깊을 수 있는 것이다. 카프카의 제로지대에서의 고뇌와 어기에 수반되는 소외성은 김교수의 년역을 통해 국한상황에 놓여진 우리 현대인의 의 존재를 심감케해준다.

특히 카프카의 문장은 정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그런한 점이 있었겠으나 이점을 깊과 소송과 어리한필치로 장점<소송>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았다.

이유영<서강대교수>

신간서평

「소 송」

저자:프란츠·카프카
역자:김광요
발행:도서출판 「비전」

독일 문학에 있어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하우프트만의 자연문학이지 남과 함께 독일문학은 침체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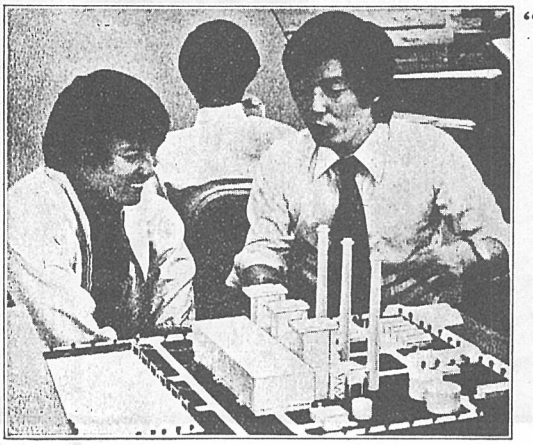
그후 인상주의들기계 슬 박힘 정도로 위기의식이강도는 불안과 소외의 표현주의시대로 접어든다. 이시점에서 프란츠카프카의 소외의 문학은 한생의는 것이다.

카프카의 영향은 2차대전후의 문학에 한정되는것이 아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작가치고 카프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작가는 거의없다. 거의 극음으로 물아상못한 불안과 소외감. 그러한 현대의 주제를 담은 백주 복이하면서도 독자를 끌가지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속에 매혹시키고 마는 카프카의 소설. 주술적인 유혹인 천재로서의소외된 사생활이 현대의 모든 세계 작가에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빛뭇 순수작가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던져주고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에 소속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세계에도 소속되지않은 이방인은 존재를 갖지 못한다. 아프카페페스의 점은 동시에 존재의 「유형지」라고 하는 비극적인 카프카의 생애를 끄덕하였속일 박물이라는 이면 (裏面) 을 갖고 있다. 이것의 이해없이는 존재문학인 그의 작품구성을 알수없을것이다. 어떻게 이출현의 세로지대에서 발출하고 어떻게 세계로의 인장과 소속을 허용받고 존재의 가치를 획득할가 하는 존재론적인 문제가<소송>을 최대의 예로 하는 카프카의 모든 작품은 유일한 근본테마인 것이다. 다시말하면<소송>이라는 작품을통해 카프카의 문학세계를 깊을 수 있는 것이다. 카프카의 제로지대에서의 고뇌와 어기에 수반되는 소외성은 김교수의 년역을 통해 국한상황에 놓여진 우리 현대인의 의 존재를 심감케해준다.

특히 카프카의 문장은 정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그런한 점이 있었겠으나 이점을 깊과 소송과 어리한필치로 장점<소송>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았다.

이유영<서강대교수>



"도면위에 쏟은 정성이
거대한 구조물로 바뀔때
또한번의 보람을 느끼곤하지."

「중화학공업의 필요성이 절실해질수록 우리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 사업계획의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정이 끝난후의 시운전에까지—.
엔지니어링의 손길이 닿지않는 분야가 없을정도니까.」
「지난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수단에 8,800만불 규모의 타이어프로젝트를 진출시켰지.
국내사업으로 울산화력4·5·6호기, 지하철3·4·5호선 등을 착수했고…
우리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셈이야.」
「아직까지는 프로젝트의 기본설계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짧은 언젠 맞이겠지.
그럴때마다 기술축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곤해.」
「한땀씩 돌을 쪼아내는 석공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어.
각고끝에 빚은 열매일수록 더욱 값진것일테니까.」

쿠웨와의 만남 ⑧ —대우엔지니어링 기술관리부 유승수

건설·중공업·엔지니어링·조선·전기를 발휘하는 종합건설회사를 꿈은 다하는 해외에서 대우건설공사와 플랜트건설을 진행하는 한편, 단일항 최고 합작된 기술로 국내 최대규모의 울산화력 발전소 4, 5, 6호기를 건설하고 있읍니다.

대우가족